

01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대책기간 개시 AI 능동예찰·구제역 백신항체검사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어질 특방기간 동안 야생조류·가금에 대한 AI 능동예찰이 강화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강도를 높인다.

올 겨울도 AI 유입 위험 능동예찰 강화 기조 유지

방역당국은 올 겨울에도 고병원성 AI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 보고건은 3,364건으로 15%가량 늘어났고, 가을철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도 발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AI 발생시점이 앞당겨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새 도래 초기인 10월부터 국내 주요 철새도래지 19개소의 예찰을 전년대비 10% 늘린다.

위험축종인 오리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다발 지역인 나주·영암·무안·함평·부안·고창·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기간 중 4회에 걸쳐 검사한다.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해당 계열사 소속 도축장에서의 검사도 늘린다.

이처럼 능동예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기관을 활용한 정밀검사도 확대한다. 지난 겨울 3개소에서 864건을 시범 진행했는데, 올해는 4개소 4,600건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2주마다 위험도 평가를 통해 조정한다.

2021-22년 겨울 발생건당 15만수였던 살처분 피해는 2022-23년 겨울 발생건당 8.8만수로 크게 줄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지역별로 조정하면서다.

올 겨울에는 이 같은 지역 단위 조정체계를 본격 적용한다. 동일 시군에서 3건 이상 발생하는 등 발생경향이 집중될 경우 위험도 평가를 즉시 실시해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 형태로 진행됐던 겨울철 오리 사육제한은 고위험지역에 대한 강제적 명령으로 강화된다.

당국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고위험 농장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사육제한을 명령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별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예시(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 강화 소 검사두수 ↑ 염소 능동예찰



지난 5월 충북 청주·증평에서 발생했던 구제역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 10월 4일부터 2주간 일제접종을 실시했다. 기존 6주였던 일제접종 기간을 2주로 단축하되,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소규모 농장은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1월부터는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 농장당 검사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늘리고, 염소에 대한 능동예찰도 신설한다.

과거 구제역이 3회 이상 발생했거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100명 이상으로 많은 26개 시군의 우제류 농장이 집중 관리대상이다. 사육두수 대비 연간 백신 구매량이 저조한 농장도 점검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조기발견·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데일리벳 www.dailyvet.co.kr

02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가동...24곳 특별대책상황실 설치

충남도, 오리농가 사육제한·52곳 축산차량 통제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는 내년 3월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철새도래지 9개 시군 18개소 52지점의 축산차량을 전면통제하고 오리농가의 일시적 사육을 11월부터 내년 2024년 2월까지 제한한다. 또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지역 59개 시군의 돼지 반·출입도 금지되며,

양돈농가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구제역 백신이 일제히 접종된다. 소·돼지 분뇨의 장거리 이동도 금지한다. 도내 가금류, 우제류 가축의 질병감염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도 확대된다. 내년 3월까지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특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오진기도 농림축산국장은 “축사소독·손세척·장화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이 의심되면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뉴스1www.news1.kr

03

음성군, 겨울철 고병원성 AI 차단 특별방역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농가 휴지기제 시행

충북도 음성군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방역 고삐를 바짝 죄다. 군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AI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방역 기간 내 매주 수요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방역차와 광역방제기(음성군 5대, 공동방제단 3대)를 이용해 주요 하천변과





대로변 등에서 특별 방역을 진행한다.

고병원성 시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등을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소를 1곳에서 2곳으로 늘려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군은 방역용 소독약품을 가금 농가에 2,077배부하고, 가금농가 131호에 전담관 54명을 배정했다.

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오리농가 휴지기제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축 발생 시 가축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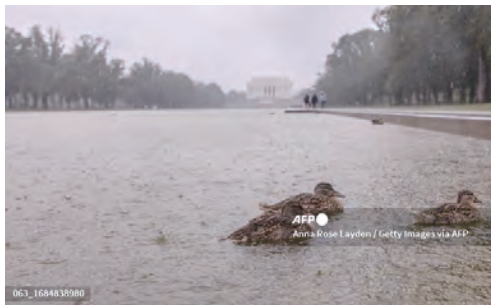
한편, 음성군은 134농가에서 825만5,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다.

출처:충북일보 www.inews365.com

04

빗 속 헤엄치는 오리들

포토뉴스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내 수영장에서 오리들이 빗 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열대성 폭풍 '오펜리아'는 지역에 강풍과 비를 몰고 왔고 주민들은 잠재적인 홍수와 정전에 대비하고 있다.

출처:국제뉴스 www.gukjenews.com

05

가을 즐기는 오리 한 쌍

포토뉴스



지난 9월 19일 대전 유성구 구성동 카이스트 내 위치한 오리연못에서 한 학생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뒷편으로 오리 2마리가 걸어 가고 있다.

출처:대전일보 www.daejonilbo.com